

<교과서 59쪽> 事有可議, 曰可曰否, 各陳所懷, 是爲美事.

위 문구는 『조선왕조실록』, 「증종실록」에 나오는 말로, <증종 38년 4월 16일(庚寅日)의 기사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전 및 해석]

諫院啓曰: “朝廷若有論議處置之事면, 則宰相臺諫侍從이, 相與平心으로, 各陳所懷하되, 無有少隱하며, 或可或否하여, 不爲苟同이니, 此盛世之美事라. 頃者各執己見하고, 務爲好勝하여, 一人唱之에, 靡然順之요, 明知其非나, 而莫有言者하니, 至爲非矣라. 今者降號改號와, 守令改差等事를, 因侍從臺官之啓로, 議于大臣하고, 已下成命하니, 此懲惡警衆之意也라. 臣等亦以所懷啓達者는, 非敢自是而非人也요, 欲自上執其兩端하여, 用中于此也라. 今聞臺官이, 以不關之事辭避라, 故敢啓하오니이다.”

答曰: “大臣臺諫侍從이, 其計各異라, 事有可議면. 曰可曰否하여, 各陳所懷가(니), 是爲美事라, 故令臺官勿辭矣하니라, 啓意至當하다.”

사간원에서 이뤄졌다. 조정에 논의하여 처리할 일이 있으면 재상, 대간, 시종이 함께 공평한 마음으로 각각 생각한 바를 진술하되, 조금도 숨김이 없으며 옳다고 하고 그르다고 하여 남을 따라하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태평시대의 아름다운 일이다. 지난번에 각자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여 힘써 이기고자, 한 사람이 제창함에 쓰러지듯이 따르고, 분명히 그릇됨을 알면서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지극히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 음호를 강등하고 음호를 고치는 것과 수령을 바꾸는 등의 일을 시종과 대관의 아킴으로 대신과 의논하고 이미 결정한 명령을 하달하니 이는 악을 징계하고 무리를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신들 또한 생각한 바를 아뢴 것은 자신이 옳고 남이 그르다고 여긴 것이 아니고 임금에게 그 양쪽을 잡아서 중도를 실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대관들이 관련 없는 사항으로 물러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웁니다.

왕이 답하였다. 대신, 대간, 시종이 그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일에 의논할 것이 있으면 옳다 그르다하여 각각 생각한 바를 진술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해설]

우선 해설에 앞서 1.降號(降邑號), 2.改號(改邑號), 3.改差(遞差), 4.辭避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두 역사 용어로 1.강호(강읍호)는 읍의 명칭을 강등하는 것이고, 2.개호(개읍호)는 읍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3.개차(체차)는 관리를 교체하는 것이고, 4.사피(辭避)는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증종실록 1543년(계묘년) 4월 기사에는 읍호의 강등과 관리의 교체에 대한 여러 건의 내용이 보인다. 事有可議, 曰可曰否, 各陳所懷, 是爲美事.에서 증종이 관리들의 다양한 논의를 존중했음을 알 수 있다.

관례상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을 읍으로 강등한다. 더 이상 강등할 수 없는 지역은 명칭을 바꾼다. 이는 악을 징계하고 백성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관리를 교체하기도 한다. 당시에 도 降號(강호), 2.改號(개호), 3.改差(개차)에 대한 관리들의 찬반 논의가 있었다. 그런 와중에 辭避(사피)하는 관리까지 발생한다.

이에 사간원에서 상소를 올리었고, 임금도 관리들에게 各陳所懷, 是爲美事.라고 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답한 내용이다.

▶ 토론의 중심은 문제의 해결에 있다. 한쪽의 의견에 치우친다면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힘들다. 사태의 해결은 다수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론의 가치와 그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 侍從: 조선시대 홍문관의 옥당(玉堂), 사헌부, 사간원의 대간(臺諫), 예문관의 검열(檢閱), 승정원의 주서(注書)를 통틀어 이르던 말.

▶ 差: 심부름꾼, 심부름가는 벼슬아치. 파견하다, 사신으로 보내다.

▶ 成命[chéng mìng] 이미 정한 명령, 결정된 명령, 결정사항.